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에 가구 특성이 미치는 영향

이 상 록(한신대 강사)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이혼율 및 별거율의 증대와 성별간 사망율 격차의 증대로 여성 가구주 가구가 급격하게 증대됨에 따라, 서구 선진국가들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 문제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구 국가들에서의 이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도 가구소득의 주요한 원천인 남성 배우자의 상실(실직, 퇴직 등의 여타 사회적 위험(social risk)보다 더욱 크게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인식(Burkhauser & Duncan, 1989)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¹⁾, 다른 한편으로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빈곤의 여성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은 현 시점뿐 아니라 앞으로의 현대사회에서도 주요한 빈곤문제 양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은 가구내 양육 자녀들에게 빈곤의 세습을 통해 사회적 빈곤을 재생산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이에 관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²⁾. 이와 더불어,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은 전통적인 가구 유형

1) 와이즈만(Weitzman, 1985)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여성 가구주 가구로의 가구형태의 변화과정에서 가구 전체의 경제적 수준은 70%나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 평가되고 있다.

2)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성년이 된 이후 여타 가구의 아동들보다 빈곤가구로 전락할 확률이 더욱 높다는 연구결과(Mclanahan, 1985),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성을 학습함으로써 다음 세대에서 복지 의존성의 심화를 야기하는 토대가 된다는 연구결과(Mclanahan, 1988), 더

만을 전제로 구성되었던 기존 사회보장제도 체계의 한계와 위기, 그리고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구 국가들에서의 여성 가구주 가구에 대한 높은 학술적, 정책적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기껏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은 여성문제 중에서도 매우 특수한 사안으로만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이 기존 사회구조 및 사회보장 체계에 제기하는 함의는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이러한 관심의 미흡은 무엇보다도 여성 가구주 가구의 규모나 비중이 서구사회와는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미미하고,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여성 가구주 가구의 발생을 야기하는 사건(즉, 이혼 및 별거, 미혼모 발생, 성별간 사망을 격차)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것이라는, 그리고 앞으로도 서구사회처럼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와 예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5년도 현재 단독 세대주만의 여성 가구주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5%에 이르고, 75년과 95년 사이 이혼여성 가구의 증대율이 300%, 유족여성 가구의 증대율이 140%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통계청, 1995),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 문제가 단순히 서구 선진국가들에만 국한된 문제로 인식될 수는 없음을 제기하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한국사회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의 이론적 관점들의 한국사회에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이와 더불어 이들 가구의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한편,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에 대한 서구 국가들에서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여성 가구주 가구 발생이 야기하는 경제적 상실 수준의 측정에만 주목하여(Weitzman, 1985; Peterson, 1996; Hoffman & Duncan, 1988, Holden & Smock, 1991),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의 원인을 몇몇 이론적 가설들의 실증적 검증을 통해 분석하고 있지만(Mauldin, 1990; Mauldin & Koonce, 1990, Heath & Kiker, 1992), 관련 요인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아직까지도 여성 가구주 가구가 빈곤하게 된 원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최근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여성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

나아가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성장 이후 여성 가구주 가구를 구성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 결과(Mclanahan & Bumpass, 1988) 등은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의 영향이 현 시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서의 빈곤의 확대 재생산에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의 원인에 대한 규명 노력은 아직까지도 전적으로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구에서의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의 원인을 가구 특성을 중심으로 네가지 관점으로 구분하고, 각 관점에서의 주요 요인들이 가구소득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관점들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에서의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 및 저소득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여성 가구주 가구는 남성 배우자를 사망으로 상실한 유족여성 가구인데, 이는 첫째로 여성 가구주 가구 구성에서 유족여성 가구의 비중이 90%에 이르러(통계청, 1995) 이들 가구들이 한국사회에서는 여성 가구주 가구를 대표함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유족여성 가구는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기에 조사접근이 가능한 반면, 여타 유형의 여성 가구주 가구는 조사 대상자 확보 조차 어렵다는 점이 감안되었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관점들과 기존연구들의 검토

기존 연구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의 원인은 이론적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진단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의 논의들을 네가지 이론적 관점으로 구분 정리하고, 각 관점들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특성론적 관점

개인 특성론적 관점은, '개별 가구의 가구소득은 주로 가구주의 근로소득으로 구성되고, 따라서 가구소득 수준은 가구주의 소득 획득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소득결정 이론에 근거하여, 여성 가구주 가구들간 가구소득의 차이 역시 여성 가구주의 개인적 특성, 특히 학력, 기술수준 등과 같은 인적자본 요소의 축적 수준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인식한다 (Mauldin, 1985; Peterson, 1985; Heath & Kiker, 1992).

기존의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학력, 취업경력 등의 인적자본 요소들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가구소득 및 빈곤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져(Mauldin & Koonce, 1990; Uhlenberg et. al., 1990; Smock, 1993, Folk, 1990; Rodgers, 1994, Smith & Zick, 1986), 이와 같은 개인 특성론적 관점의 적합성이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수준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인적자본 요소의 영향은 서구 국가들과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³⁾, 그리고 여성 가구주

소득의 가구소득내 비중 역시 서구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국사회에서의 개인 특성론적 관점의 적합성은 자명한 것으로 선택적으로 가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족 특성론적 관점

남성과는 달리 자녀구성 및 가족구성 등이 여성들의 소득획득 여부 및 소득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가구소득 수준은 가족 성원간 소득 및 소비 공유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등에 주목하여, 가족 특성론 관점에서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 발생에는 가구구성 등의 가족 특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한다(Holden & Smock, 1991; Espenshade, 1979, Winkler, 1993, Weaher & Crystal, 1995).

부양 자녀 수 및 요보호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낮은 반면 빈곤 발생율이 높다는 분석결과들(Rodgers, 1994, Cramer, 1980; Holden & Smock, 1991)과 여성 가구주 가구의 가구소득의 역사적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 가구의 빈곤을 증대는 소득을 공유할 수 있는 동거원 수의 감소에서 기인된 것으로 지적한 연구결과(Barrington & Conrad, 1994)는 이와 같은 가족 특성론적 관점의 적합성을 지지하여 준다.

그러나, 개인 특성론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가구소득 구성은 일반 가구와는 달리 가구주 소득 이외의 여타 소득원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Lino, 1994; Weiss, 1984), 가족 특성론적 관점의 이론적 적합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상태가 배우자 상실 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결과들(Morgan, 1981; Weiss, 1984; Zick & Smith, 1991)에 입각하여 본다면, 가구소득 수준이 가구특성에 따라 구조화 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하는 가족 특성론적 관점은 이들 가구의 경제적 상태의 역동적 변화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3. 배우자 상실 특성론적 관점

배우자 상실 특성론적 관점에서는 여성 가구주 가구간 경제적 수준의 차이는 배우자 상실 과정의 차이가 야기하는 경제적 충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따라서 배우자 상실과정의 차이

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인적자본 수준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김수곤, 심경옥, 1984; 이철순, 1991; 류진석, 1995)의 연구결과들은 인적자본 요소의 영향이 서구 국가들과는 상이할 수 있음을 제기하여 준다.

는 이들 가구의 경제적 수준 차이를 결정함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바라본다. 즉 배우자 상실 유형에 따라 상실과정에서 비용 발생의 차이가 야기되는데(Haurin, 1989; Zick & Smith, 1988; 1991), 이는 곧 배우자 상실 이후의 경제적 수준의 차이로 귀결되게 된다. 또한, 배우자 상실 이후 기간과 상실 시점은 배우자 상실에 대한 적응 수준 및 배우자 상실에 대한 경제적 대비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 상실과정의 차이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Morgan, 1981).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이혼 및 남편 사망시 연령(Zick & Smith, 1991), 이혼 후 및 남편 사망 후 기간(Heath & Kiker, 1992; Ulenberg et al., 1990), 해혼 형태의 차이(Haurin, 1989; Mauldin, 1985; 1990)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져, 배우자 상실 특성론적 관점이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 및 저소득 발생을 설명하는 유력한 관점일 수 있음을 확인하여 준다.

그러나,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상태가 배우자 상실 과정에서의 비용 발생 뿐 더 나아가 배우자 상실 이전의 경제적 수준 등과 관련된 총체적 결과일 수 있음을 감안하면, 배우자 상실 특성론적 관점의 적합성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배우자 상실 이전의 가구소득 수준과 배우자 상실 이후의 가구소득 수준간 높은 상관관계를 지적하고 있는 일부 연구들의 분석결과를 이러한 한계들을 보여준다(Weiss, 1984; Bound et al., 1991; Morgan, 1981; Holden et al., 1986). 또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가구소득은 배우자 상실 이후 가구원들의 경제적 적응 노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상태의 차이를 단순히 특정 시점에서의 상실 과정과 관련된 우발적 결과, 혹은 적응기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로만 인식하는 배우자 상실 특성론 관점의 설명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배우자 상실 이후 여성 가구주의 취업여부, 취업형태, 노동시간, 취업소득 등 경제적 적응노력이 가구소득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Folk, 1996; Dudge, 1995)은 이를 반증하여 준다.

4. 배우자 상실 이전의 가구 계층적 지위 특성론적 관점

계층적 지위 특성에 주목한 관점에서는 여성 가구주 가구들간 경제적 수준의 차이는 배우자 상실 이전의 가구 계층적 지위가 반영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한다(Morgan, 1981; Holden & Smock, 1991).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은 배우자 상실 이전의 소득 불평등 구조의 문제로 인식된다.

즉, 이들 관점에서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현재의 경제적 상태는 배우자 상실 이전의 자산 및 부의 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에 주목하여, 배우자 상실 이전의 가구 계층적

지위 수준은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 발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한다(Burkhauser et al., 1991). 또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주목하더라도(Lino, 1994), 상실 배우자의 계층적 지위는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차이를 매개로 배우자 상실 이후의 경제적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동류혼적 성향을 고려하더라도 상실 배우자의 계층적 지위 차이는 여성 가구주의 소득 획득 능력의 차이를 매개로 가구소득 결정에 유력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상실 배우자의 계층적 지위의 영향은 주목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Mauldin & Koonce, 1990; Hoffman, 1977). 이외에도, 저소득 계층에서 가족해체율이 높은 반면, 재혼율은 낮다는 측면에서 소득계층적 지위와 빈곤 여성 가구주 가구의 발생과 강력한 연관성이 제기되기도 한다(Mott & Moore, 1978; Espenshade, 1979, Morgan, 1981) .

한편, 계층적 지위의 영향에 주목한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남편 사망 전 혹은 이혼 전 가구소득 및 남편 소득(Mauldin, 1990; Smock, 1993), 배우자 상실 전 가구재산(Hurd & Wise, 1989) 등이 현 시점의 가구소득 수준 및 빈곤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가구소득이 배우자 상실 이전에 구조적으로 결정된다는 계층론적 관점의 적합성을 지지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상실 전 계층적 지위가 배우자 상실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연계되어지는가의 여부 및 그 수준은 노동시장내 성차별 수준 및 여성 가구주 가구에 대한 사회보장적 지원 수준 등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형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계층론적 관점의 적합성을 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연구분석에서는 1997년 8월 현재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유족여성 가구들을 대상으로 가구상태 및 가구특성 전반을 설문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⁴⁾.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1997년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표본 3,000 가구에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17부를 제외한 831부가 통계분석과정에 활용되었다.

4)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분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상복(1998)을 참조하시오.

2. 관련 변수

본 연구에서의 관련 변수들의 구성과 정의, 측정방법들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1> 변수들의 구성과 정의, 측정

구분	관련 변수	정의	측정
종속변수	로그 총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 총소득	소득월별 월 평균 소득 측정 -> 통합(만원)
개인특성	연령	유족여성의 현재 연령	기준년도 - 출생년도
	학력	유족여성의 교육년수	교육년수 측정
	취업경력	생애기간 취업년수	취업년수 측정
	직업훈련	직업훈련 이수 여부	(이수-1) (미이수-0)
	기술수준	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보유-1) (미보유-0)
건강수준	객관적 건강수준	# 약국 및 병의원 이용도 (6점 척도)	
가족특성	가족규모	동거 가구원 총 수	가구내 동거 가족 및 친족 동거원 총수 측정
	요보호자녀	7세이하 미취학 자녀	(보유-1) (미보유-0)
	취업자녀	취업소득이 있는 자녀	(보유-1) (미보유-0)
	친족동거원	가구내 동거 자녀의 친족	(보유-1) (미보유-0)
	거주형태	가구 거주유형	(본인집 단독거주-1) (지가, 친정집 거주-0)
가족구성 기간	혼인기간	(남편사망년도 - 혼인년도)로 측정	
배우자 상실 특성	상실시점	사망시 유족여성 연령	(남편 사망년도 - 유족여성 출생년도)
	상실 후 기간	남편 사망 후 기간	(기준 년월 - 사망년월) (단위: 개월)
	상실유형	남편 사망 유형	(질병사-1) (사고사-0)
	소요 의료비	사망과정 소요 의료비용	(83년 지수 기준 환산) (단위: 만원)
상실전 계층 지위 특성	보상금 및 위로금	사망 관련 보상금 및 위로금 총액	(83년 지수 기준 환산) (단위: 만원)
	남편의 취업소득	사망 전 남편의 월 평균 취업소득	(83년 지수 기준 환산) (단위: 만원)
	남편 사망 전 가구재산	사망 전년도 보유 가구 재산 총액	(83년 지수 기준 환산) (단위: 만원)
	남편의 직업적 지위	사망 전 남편의 주요 직업	(생산관련직-0) (사무직-1) (전문직/고위관리직-2)
남편의 고용상 지위	사망 전 남편의 고용형태	(일용직-0) (임시직-1) (상용직-2) (자영업-3) (4인 이하 사업주-4) (5인 이상 사업주-5)	

IV. 분석결과

한국사회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각 이론적 관점을 개별 모델로 구성, 개별 모델 및 전체 모델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났다.

개별 모델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 변량에 대한 개별 모델의 설명력을 R^2 수치로 비교하여 보면, 개인특성 모델의 설명력은 가족특성 모델이나 계층특성 모델에 비해 낮게 나타나,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의 설명에 개인 특성론적 관점의 적합성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특성 중 학력, 기술자격 및 건강수준은 여타 특성 변수들이 통제된 통합모델에서도 가구소득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여성 가구주의 인적자본 특성 차이에서도 일부분 기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여성 가구주의 인적자본 수준 제고가 이들 가구의 경제적 수준 향상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정책적으로 시사하여 준다.

가족특성 모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족특성 모델의 설명력은 계층특성 모델과 더불어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수준 결정에 가족특성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특성 요인 중 취업자녀의 보유 여부는 개별 모델에서 뿐 통합 모델에서도 가구소득 결정에 가장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자녀들과의 소득공유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곧 '남편 상실 이전에는 남편의 경제력에, 남편 상실 후에는 자녀들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구조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은 가부장제적인 가족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배우자 상실 과정의 차이가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상실특성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실 과정의 차이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의 발생을 설명함에 있어 그 설명력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모델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사망시 연령 변수도 통합모델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져, 가족주기를 대리한 것이지 사망특성을 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 발생이 사망과정의 특성과는 관련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2> 유족여성 가구의 가구소득 결정요인(회귀분석)

		개인특성	가족특성	상실특성	계층특성	통합모델
개인 특성	(연 령)	.016407**				
	학 령	.018162*				.003533
	취업경력	.008323				.009379*
	직업훈련	-.078160				-.093829
	기술자격	.244933**				.235319*
	건강수준	.042589*				.044193*
가족 특성	가구원 수		.135607**			.126855**
	요보호 자녀		-.091770			-.091799
	취업 자녀		.450189**			.505271**
	친족 동거		-.004254			-.031108
	거주형태 (혼인가간)		.199351* (-.004254)			.082371
상실 특성	사망시 연령			.008353**		4.75E-04
	사망후 기간			6.45E-04		-3.46E-04
	사망 형태			.066916		-.034092
	소요 의료비			2.22E-05		-1.87E-05
	위로금/보상금			1.21E-05		-1.47E-05
계층 지위 특성	남편 취업소득				.001570**	.001974**
	사망전 재산				1.69E-05**	1.15E-05**
	사무직 ^a				.066145	.050754
	전문직 ^a				.077591	.023098
	임시직 ^b				.164061	.083874
	상용직 ^b				.088737	.097895
	자영업 ^b				-.139524	-.040273
	사업주A ^b				.166485	.425480
	사업주B ^b				-.415824	-.151731
상 수	12.637806	13.196870	13.268518	13.340096	12.667858	
R ²	0.10284	.24730	.03566	.20404	.47398	
F값	16.24517**	44.36955**	6.88743**	17.86194**	23.00074**	

* P<.01 ** P<.001 a:직업적 지위의 준거범주-생산직 b:고용상 지위의 준거범주-일용직

그러나, 분석결과에서 관련 변수들 중 사망 후 기간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분석결과는 흥미로운데, 이는 배우자 상실 후 적응 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상태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곧 한국사회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이 가구 차원에서의 적응 기간 경과와 적응 노력 제고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성격의 문제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사망전 가구 및 사망 배우자의 계층적 지위가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계층특성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계층특성 모델의 설명력은 가족 특성모델과 더불어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이 사망 이전의 가구 계층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서는 계층적 지위 특성 변수 중 사망 남편의 취업소득과 남편 사망 전 가구재산 수준은 개별모델 뿐 아니라 통합 모델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망 남편의 직업 및 고용형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직업적 지위나 고용상 지위 보다는 소득계층적 지위가 배우자 상실 후 경제적 수준 결정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의 계층특성 모델의 분석결과는 곧 성 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여성의 소득 획득 기회가 제한적이고, 이러한 구조에 순응하여 여성 가구주의 경제적 적응 노력 역시 제한적인 상황, 더우기 여성 가구주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 역시 부재할 뿐 아니라 계층 편향적인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배우자 상실 전 계층적 지위에 의해 구조적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곧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의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소득 불평등 구조와 남성 중심적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정책적 과제로 요청되고 있음을 제기하여 준다.

V. 결론: 이론적 의의와 정책적 함의

현대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가족해체 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이와 더불어 이들 가구들이 주요 빈곤계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문제 사안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학술적으로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의 문제는 가구주 개인의 소득획득 능력과 연관된 문제로 인식되거나, 적응 기간의 경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혹은 가구주가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성 문제의 일 부분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가구소득 결정에 배우자 상실 이전의 계층적 지위와 동거자녀들의 경제적 능력이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이 가부장제 가족구조 및 소득 불평등 구조에서 기인한 산물임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기존 관련 정책들에서의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저소득과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극히 주변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 구조가 배우자 상실 이후의 여성들의 삶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어, 소득계층간 불평등 구조의 개선에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노력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제기하여 준다. 이와 더불어,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앞서 경험하고 있는 서구국가들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문제가 여성들에게 경제적 불안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후 세대의 빈곤 및 사회적 빈곤의 확대 재생산에 토대가 되고 있는 현실을 교훈적으로 인식한다면, 한국사회에서도 여성복지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라도 노동시장 전반에서의 성 차별적 관행과 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VI. 참고문헌

- 김수곤, 심경옥. 1984.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류진석. 1995. "도시 저소득가구의 소득결정요인", 서울대 박사논문.
- 이상록. 1998. "유족여성 가구의 가구소득 결정요인", 서울대 박사논문.
- 이철순. 1991. "한국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시간배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 통계청. 1975; 1995. 인구주택 총 조사.
- , 1994. 인구동태 통계연보.
- Barrington, L. and C. A. Conrad. 1994. "At What Cost a Room of Her Own? Factors Contributing to the Feminization of Poverty Among Prime-Age Women, 1939-1959,"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54(2); 343-357.
- Bound, J., G. J. Duncan, D. S. Laren, and L. Oleinick. 1991. "Poverty Dynamics in Widowhood," *Journal of Gerontology*, vol. 46; S115-124.
- Burkhauser, R. V. et. al. 1991. "Wife or Frau, Women Do Worse : A Comparison of Men and

- Women in the U. S. and Germany after Marital Dissolution," *Demography*, vol. 28.
- Cramer, J. C. 1980.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5.
- Dodge, H. H. 1995. "Movements Out of Poverty Among Eldely Widows," *Journal of Gerontology*, vol. 50(B); S240-249.
- Duncan, G. J. and Hoffman S. D. 1985. "A Re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Demography*, vol. 22(4); 485-497.
- Espenshade, T. J. 1979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1; 615-625.
- Folk, K. F. 1996. "Single Mothers in Various Living Arrangements: Differences in Economic and Time Resource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55(3); 277-292.
- Haurin, D. R. 1989. "Women's Labor Market Reaction to Family Disruptio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4-61.
- Heath, J. A. and B. F. Kiker. 1992. "Determinants of Spell of Poverty Following Divorce," *Review of Social Economy*; 305-315.
- Hoffman S. D. 1977. "Marital Instability and the Economic Status of Women," *Demography*, vol. 14; 67-76.
- Hoffman S. D. and G. S. Duncan. 1988. "What are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Demography*, vol 25; 641-645.
- Holden, K. C. and P. J. Smock. 1991. "The Economic Costs of Marital Disruption : Why Do Women Bear a Disportionate Cost?"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7, 51-78.
- Holden, K. C., R. V. Burkhauser, and D. A. Myers. 1986. "The Dynamics of Poverty Among the Elderly: Income Transitions at Older Stages of Life," *Gerontologist*, vol. 26; 292-297.
- Lino, M. 1994. "Income and Spending Patterns of Single-Mother Families," *Monthly Labor Review*, May, 29-37.
- Madulin, T. 1985. "The Effect of Human Capital on the Economic Status of Women Immediately Following Divorce or Seperation," *Doctoral Dissertation, Ohio Uiv.*
- . 1990. "Women Who remain above the Poverty Level in Divorce : Implication for Family Policy," *Family Relations*, vol. 39, 141-146.

- Mauldin T. and J. Koonce. 1990. "The Effect of Human Capital on the Economic Status of Divorced and Separated Women; Differences by Race," *The Review of Black Political Economy*, 55-68, Spring.
- McLanahan, S. 1985. "The Family Structure and the Reproduction of Pover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0, 873-901.
- . 1988. "The Family Structure and Dependency: Early Transition to Female Household Headship," *Demography*, vol. 25(1); 1- 16.
- McLanahan, S. and L. L. Bumpass. 1988. "Intergenerational Consequences of Marital Disru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130-152.
- Morgan, L. A. 1981. "Economic Changes at Mid-life Widowhood;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3; 899-912.
- . 1988. "Outcomes of Marital Separation; A Longitudinal Test of Predi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50; 493-498.
- Mott, F. L. and S. F. Moore. 1978. "The Cause and Consequences of Marital Breakdown," in Mott, F.(ed), *Women, Work, and Family*, Lexington , Mass: Lexington.
- Peterson, R. R. 1985. "Theories of Gender Inequality and their Application to the Study of Marital Status Differences among Women," *Unpublished Dissertation*, Columbia Univ.
- . 1996. "A Re-evaluation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1; 528-536.
- Smith K. R. and C. D. Zick. 1986. "The Incidence of Poverty Among the Recently Widowed; Mediating Factors in the Life Cours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8, 619-630.
- Smock, P. J. 1993. "The Economic Costs of Marital Disruption for Young Women Over the Past Two Decades," *Demography*, vol. 30(3), 353-371.
- Uhlenberg, P., T. Cooney, and R. Boyd. 1990. "Divorce for Women after Midlife," *Journal of Gerontology*, vol. 45(1); S3-11.
- Weahrer, K. and S. Crystal. 1995. "The Impact of Coresidence on Economic Well-Being of Elderly Widows," *Journal of Gerontology*, vol. 50B(4); S250-258.
- Weiss, R. S. 1984. "The Impact of Marital Dissolution on Income and on Single Parent Househol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6(1), 115-127.

Weitzman, L. J. 1985. *The Divorce Revolution*, New-York, The Free Press.

Winkler, A. E. 1993. "The Living Arrangements of Single Mothers with Dependent Children,"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52(1). 1-18.

Zick, C. D. and K. R. Smith. 1988. "Recent Widowhood, Remarriage and Economic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50; 233-244.

———. 1991. "Patterns of Economic Change of Surrounding the Death of Spouse,"
Journal of Gerontology, vol. 46(6); S310-320.